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용했던 성경구절

<조지 워싱턴 > 창세기 49:22~25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브라함 링컨> 마 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어도어 루스벨트 > 야고보서 1:22-23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이젠하워>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리처드 닉슨 > 사사기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미 카터 >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널드 레이건> 역대하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조지 H.부시>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빌 클린턴 > 갈라디아서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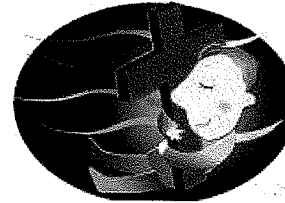


◀그뎨 그랬지▶만담 콤비 “장소팔, 고춘자”

“내 이름이 왜 장소팔인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애 소를 팔러간 사이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해서 장.소.팔이라고 지었대요” 지금 들으면 썰렁하다고 할 얘기지만 그때는 두 사람의 이런 만담에 모두 포복절도하였습니다. 까랑까랑한 고춘자의 목소리와 조금은 천똥하면서 짧은 발음으로 쉴새 없이 쏟아냈던 장소팔, 아직 생존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5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2월 12 일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너도 세상에 살 때는 그러했느니라.”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지는 않았습니 다. 그것이 후회스럽고 죄가 되어 그는 하나님에게 청하였 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루 동안만 세상에 내려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서 다 못한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그의 소망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내려오자 우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그가 벌여놓은 돈과 보물들이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재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자 아내와 아들들,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싸우며 빼앗아 모조리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도 세상에 살 때는 그러했느니라.”

- 영혼의 샘터 중에서 -

◀말야!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4)▶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 사람이 지나 갈 공간을 터 주는가를 살펴라. 너와 나란히 같이 손잡고 있고 싶어서 네 옆에 서 있는 바람에 공간을 막고 있다면 그 녀석은 너에게 “잠시” 세심한 것이지 절대 그 세심함이 오래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85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6 (강림절 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찬 송 Hymn	93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2:1-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님의 오심(3)" 베를레헴에 오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20 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2월의 예배위원◆

◆12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5	최재학	김삼영	3구역	5 대림절(2)	
12	김교섭	김선영	4구역	12 대림절(3)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김영길	김심홍	5구역	19 대림절(4)	은심자가(구역장, 인도자, 담당권사) 성탄축하의밤(24)
26	김순자	김인희	6구역	26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역사, 넓고 선진화된 나라에 살면서 보고 깨달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12.12가 먼 이국에서도 생각나는 날입니다.

1.교우소식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배근, 김순영 집사(1남여선교회) ☎575-0905 ☒ 8 Granada Pl. Glendowie

<이사> 아이들 손 잡고 와 이민 10년간 살던 정 들었던 집, 그때 아이가 이제 엄마 되어 풍성한 가족들과 새 정이 깃들어가 집을 세워갑니다.

*민병구, 조미애 집사 ☎273-2299 ☒ 12 Cambrian Cre. Howick

2.세례자 모임(예고)

<일시> 19일 주일예배 후 <세례식> 12월 25일 성탄예배

3.오늘 Tea Time은 "음식바자회(떡볶기, 어묵)" -청년부-

*오늘 Tea Time은 청년부에서 후배들인 College 학생들의 "Youth KOSTA" 참가 비 지원 바자회를 갖습니다. 맛있기는 한데 어른되어 사서 드시기는 뭐해 늘 주저하던 떡볶기.오늘은 동생들을 위한 청년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신다는 명분으로 즐겁게 접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확대당회: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시> 7일(화) 저녁 6시 교회

5.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6시>

*일주일에 한번쯤은 새벽공기를 마셔봅시다. 새벽은 하루동안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도시가 앉아있고 기도하는 자태에는 거룩함마저 숨 죽인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고 있습니다

똥싼 자리

김성국

목덜미에 짙게 내리던 여름
아이들 눈 피해
수풀속에 앉아 똥싸던 자리를
20년이 지나
궁금하여 찾자니
더운 열기에 섞여
코 끝에 묻어나던 그 냄새도
제 주인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래도 풀이 무성하기에
내 똥이 너희들을 키웠다고
인사는 하고 나왔다

나이만큼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지난 모든 것들

지난 여름, 양구를 가다가 전도사 시절 학생들 데리고 갔던 수련회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잠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다 아이들 눈 피해 볼 일 보던 자리에 눈이 갔습니다. 휴지보다는 주변의 넓적한 나뭇잎이 뒷처리에 더 어울리던 숲속의 Toilet.

똥싼자리도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추억으로 남는데 사람과의 불쾌한 기억은 좀처럼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재생산 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고집스런 마음입니다.